

레슬리 알렌 박사, 애가, 세션 12,

애가 5: 1-7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12회 애가 5:1-7입니다.

이제 애가 5장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일곱 구절만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하는 걸 잊어버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5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은 우리가 기다리던 것이고 슬픔의 측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언급한 전환점을 기억해 보세요.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느껴지지만 보다 긍정적인 미래를 구상할 수 있으므로 변화의 방향에 대한 결의가 있으며 여기서 그 결의가 표현되는 방식은 기도와 기도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멘토가 기도할 필요성을 촉구한 것입니다. 시온은 회중의 롤 모델로서 시온을 촉구하고 남성 롤 모델인 멘토는 스스로 기도에 전념하고 그 기도를 기록합니다. 3장의 시작과 끝이므로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여기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닥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는 기도의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간적 상황 위로 머리를 들어올릴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압도적이며 실제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해 의지합니다. 그것에 대해. 지금은 아크로스틱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22개의 구절이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쌍창체의 메아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22행이 이 마지막 시를 구성하고 단지 쌍창체 형식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 쌍행체는 없으며, 이 시점에서 쌍행체를 삭제해야 했던 형식에 중요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애도에 딱 들어맞습니다. 시편 25편은 합창체인 시편의 애가 기도입니다. 따라서 장르와 문학의 유형 측면에서 볼 때 왜 합체문이 있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지 변화의 표시일 뿐이고,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신호로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반응만 울리고 실제 반응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례식 애도에 어울리는 것을 잃습니다. 그 미터. 미터를 기억하시나요? 3 더하기 2, 절뚝거리는 측정기. 3, 그리고 줄의 후반부에 3개의 악센트 음절이 있기를 바라지만, 3 더하기 2는 어떤 면에서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소리에 있어서 그 자신의 특별한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하는데, 지금은 3 더하기 3 미터입니다. 그것은 매우 규칙적인 시적 박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장례식 애도를 남기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장례식 애도가 5장에서 매우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앞서 그 장례식 애도의 바탕이 되는 슬픔을 버리지 않았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미터는 그 변화를 기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심리적인 의미에서의 종결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환점이므로 이 장에는 여전히 많은 고통이 표현되어 있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5장은 아픔과 괴로움, 희망과 괴로움 사이를 오가며, 그 희망 속에 지금까지 회중이 겪어온 것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애가서, 슬픔, 죄의식, 고뇌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나 궤적에 대해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5장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이 새로운 시가 있는 곳에서 전진하는 것과 결합됩니다. 관심 있는. 나는 5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것이 마지막에 있는 세 개의 연속 비디오를 지배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 경우에는 시가 대략 3분할로 나누어진다. 이제 왜 해당 섹션을 생각해야합니까? 7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없어졌고, 우리가 그 죄악을 담당하고, 16절을 보면 면류관이 우리 머리에서 떨어졌으니,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죄에 대한 언급이 있고, 죄책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7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시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종의 후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1절에서 7절, 8절에서 16절, 그리고 열일곱 살부터 스물두 살까지.

우리는 5장을 기도 애도라고 규정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장르, 즉 우리의 오랜 친구인 장례식 애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기도 애도입니다. 물론, 장례 애도는 그 성격상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이상한 일이다. 해결해야 할 것은 인간의 상황에 대해 말하는 인간뿐이었지만, 인간의 수준에 머물면서 그 기도에 반대하여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을 훑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장례 애도와 기도 애도가 모두 재난과 연관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놀랍지 않은 방식으로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구약성서의 애도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과정 초기에 보았습니다. 특히 장례 애도에서 애도 의식을 찾을 수 있지만, 시편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애도 의식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애가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장례 애도를 다룰 때에도 우리는 들어오고, 몰래 들어가고, 재앙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발견하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탄식기도의 우선순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애가 5는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나란히 기도와 장례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2인칭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그 내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1절에서 발견하고 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 다시 발견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유일한 기도는 전체 장에 대한 일종의 틀, 틀, 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개, 끝에는 19~22개가 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기도의 요소입니다. 그 사이에는 2절부터 18절까지가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2인칭 언급은 없고 오직 회중을 언급하는 1인칭 복수 표현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감싸고 있고, 기도는 장례식 애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시편 애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애도하는 기도에는 위기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것은 기도 애도의 전체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말하면 위기에 대한 작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2절부터 18절까지 17절입니다. 5장의 대부분은 장례식 애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은 단지 장례 애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장례 애도입니다. 비판적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마지막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18절까지의 청중은 인간적인 맥락에서 말하고 있으며 상당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장례 애도는 5장에서 독특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소 이상합니다. 실제로 이는 5장이 멘토를 위해 수행되는 두 가지 임무에 대한 증거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내 기도에 대한 강조가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어지며 왜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온갖 이유가 제시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zion이 롤모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온이 기도하고, 결국 회중이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3장의 시작과 끝 부분에 기도의 간증이 있는데, 기도하는 남성 롤모델인 멘토 자신이 있었고, 그 의미는 힌트, 힌트, 이것이 당신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부르심이 마침내 응답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장례식 애도에 중점을 두었고 멘토는 심리적으로 이러한 그런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길고 매우 복잡합니다.

아마도 멘토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멘토는 세 번째 시의 끝에 도달하면 5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례가 거행될 때, 오 안돼, 오 안돼. 아니면 그가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때, 아뇨, 그들은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장이 필요했고, 여전히 장례식 애도 유형의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애도할 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슬퍼하는 신자로서 우리 역시 이러한 슬픔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결국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죄의식도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고, 화해에서 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필요하며, 슬픔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 한 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위태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이 갱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편에서 그 관계의 갱신을 시작해야 하며, 회중은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에서 장르 측면에서 놀라운 혼합을 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작과 끝의 기도 애통일 뿐이지만 그 안에 통합된 기도 애통은 말하자면 슬픔을 팔로 감싸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포로 감싸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 뭔가 말해야 합니다.

1장, 2장, 4장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포위 상황에 있었고 사람들이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슬픔은 기억, 기억, 기억의 문제입니다.

사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것은 괴로운 고통이 하나가 되어 반복해서 연습하는 그 끔찍한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희석시키면 일어난 일을 흡수하고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픔은 본질적으로 과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속보를 전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 생각하는 데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한 슬픔 전문가는 슬픔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계가 다른 시간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계는 한 시간씩 앞으로 가는 반면, 우리는 그대로 있고 우리의 시계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에게는 고난이 계속되었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3장에서는 변화가 있었고, 멘토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 현재, 전후 상황, 적 점령지로 이동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전면에 나오는 것을 3장에서 두 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것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포위는 과거에 있었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재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 점령된 나라에서 전후 경험을 통해 새로운 육체적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3장 34절부터 36절과 51절에서 보았고, 멘토에 의해 언급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점령된 나라에 살고 있는 5장에서 그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유다는 사실상 포로수용소와 같았고, 적군은 도처에

있었고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과거, 과거의 고통에서 현재, 현재의 고통으로 전환됩니다.

과거의 고통을 극복하고 지금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멘토에 대한 칭찬이었을까요? 글썄요, 18절에 오면 다시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데,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가장 우울하게 만들었나요? 18절, 이는 그 위에 황폐된 시온 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은 돌이켜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 아마도 폐허가 된 옛 성전의 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있고 주위를 둘러보며 시온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시온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있어?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점령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멸망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여전히 회중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아무튼 할 말이 더 많았고, 기억의 측면에서 주관적인 슬픔의 경험보다는 현재의 객관적인 경험이 주로 부각되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는 앞서도 언급한 것 같은데, 기도는 설득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도가 효과적이려면 하나님께 훌륭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탄식의 기도는 항상 좋은 사례가 되며, 키워드는 동기를 제공하는 작은 접속사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리고 당신은 이유를 제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근거를 쌓습니다. 5장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련의 동기, 즉 그들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일련의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코올중독자협회의 모델인 12단계 프로그램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의 비참함을 극복하려면 더 높은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황. 이제 역명의

알코올중독자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나 더 높은 능력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려고 거기 계시다는 멘토의 생각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가의 상황에 대해, 특히 5장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신학적 문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즉 언약 관계라는 것을 앞서 암시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의 이스라엘, 그것은 정말 뜨거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586년은 그 언약 관계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절정의 청원은 21절에서 나올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당신께로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당신 자신으로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해결해야 할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그들의 비참한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왜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되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재판관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변호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장례 애도와 기도가 합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건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통일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처음 일곱 구절의 개별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는 분위기를 정하는 직접적인 청원이 있습니다. 내내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억하다, 기억하다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활성화 기억에 대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첫 번째 구절에서도 얻은 이 모양과 보기와 실제로 유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닥친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치욕을 보시고 보옵소서.

그것은 기도 애도의 한 부분이며, 우리는 여러 번 애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예가 시편 25편에 있는데, 7절 25:7에 있습니다. 나의 어렸을 때의 죄와 범법을 기억하지 마소서.

주님,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당신의 선하심 으로 인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3장과 매우 흡사한 것 같죠? 변함없는 사랑과 선하심. 그러나 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라는 호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가 왜 당신에게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닥친 일이 본문의 전반부에 매우 일반적인 용어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의 치욕을 보고 보십시오.

물론, 그들은 멘토의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시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기도할 때 가져온 청원의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 보고, 보고,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명예의 관점에서 잘못된 점을 요약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불명예. 그리고 불명예는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고통,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 고통입니다. 앞서 슬픔, 굴욕, 체면 상실 등의 이차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인 상황만큼 나쁘거나 심지어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감정, 심리적 감정의 문제입니다. 아, 우리는 정말 비참한 기분이에요, 하느님.

우리는 너무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치욕을 보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인간 정신의 회복을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마음과 정신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신체적 문제의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기부여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서적으로나 외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로서 회중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비참하고 궁핍한 사람들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 즉 불명예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백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7절까지 와서 귀적과 경로, 슬픔, 불만, 죄책감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는 이 첫 번째 부분의 절정인 7절에서 죄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없어졌으니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노라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죄책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슬픔, 정상적인 삶의 상실에 대한 예, 침략 이전에 그들이 누렸던 삶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슬픔은 본질적으로 상실, 상실된 것들, 그리고 전체 시리즈의 상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에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슬픔과 상실의 표현인 불만 역시 불만의 기능을 합니다. 불만은 적의 점령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적의 점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매우 커 보입니다. 이 첫 번째 섹션을 살펴보면 슬픔과 불만은 나란히 있는 동반자 또는 쌍둥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이유나 이유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유와 다른 동기에 도달합니다.

2절에 이르러 우리 기업이 이방인에게, 우리 집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상속은 매우 포괄적인 용어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으로 역전되어 땅의 신학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구약신학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강력한 영토적 전통으로 제시되지만 신학적인 기초도 갖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땅은 아버지에서 아들, 손자 등으로 대대로 물려지며 가족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파들에게 주셨고, 지파들은 씨족들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나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기업이 낯선 사람에게, 우리 집이 외국인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가 상속 재산과 상실된 상속 재산을 생각할 때 핵심 구절이 있는데, 저는 열왕기상 21장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 왕국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왕궁 옆집 아합은 창밖을 보다가 옆집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 것을 보고 그 포도원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 그러면 나에게 멋진 정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니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의 궁전 옆에 포도원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이르되 당신의 포도원이 내 집에서 가깝으니 나에게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것을 위해 더 좋은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내가 그 값과 돈도 네게 주리라.

그러나 나봇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조상의 기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 이 자기에게 한 말 때문에 분개하고 침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의 기업을 네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는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왕이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뭐가 문제 야?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합니다. 오, 걱정하지 마세요.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세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두로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로 왕은 독재자였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같았고 딸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고발을 준비했고, 나뭇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당신은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 몫이에요, 애야.

이것이 문제의 끝입니다. 아뇨, 그렇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희 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여기서는 다른 텍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2장에서 우리는 땅을 잃는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부자들은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주인과 집과 자기 기업의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들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네가 남의 땅을 감히 빼앗았으니 네 땅도 잃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매우 깊은 불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불만이지만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속 재산이 넘겨졌습니다.

외국군이 사용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를 징발했습니다. 그러면 3절에서 우리는 고아가 되고 고아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과부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직유가 있고, 은유가 있고, 직유가 있습니다. 이는 1장에서 사용했던 과부(widow)와 비슷합니다. 그것은 사회학적인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지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독립적인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매우 예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취약합니다.

우리는 적의 점령하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가 마시는 물 값을 지불해야 하고, 우리가 얻은 나무도 사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새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요리하는 데 필요한 물과 나무에 대해 점유자가 부과하는 무거운 세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무료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토지의 자산은 더 이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토지관련 민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그 상황에 영향을 받으셔야 한다는 신학적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구절에 대하여 신명기 8장에 있는 구절과 신명기 8장에 있는 7절부터 10절까지를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시내가 흐르고 샘과 지하수가 흐르고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솟아나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각종 열매가 맺히는 땅이니라 감람나무와 꿀이 있고 너희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다루어야 할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땅과 이곳의 자산인 물과 나무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점유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2절과 4절에는 신학적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일이 그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을 들도록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5절, 우리 목에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피곤하며 쉴 곳이 없도다. 새 RSV에는 멍에를 메고, 우리 목에 멍에를 메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의 고대 역본에 반영되어 있으며 장점은 그것이 우리 목에 멍에를 메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에.

NIV는 그 단어를 추가하지 않고 대신에 우리를 쫓는 자들이 우리 뒤를 쫓고 있다는 일종의 의역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가깝습니다. 그들은 추적 중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너무 가까워서 우리 발뒤꿈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 부분은 발뒤꿈치 부분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NIV를 보든 NRSV를 보든 이것은 강제 노동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추구된다는 이 이야기는 확장된 의미를 생각하는 New RSV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 목 아래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고 우리 목 아래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점령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강제 노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에

따르면, 우리는 지쳤고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6일을 일했지만 이제는 7일만 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들은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일 동안 일하고, 일하고, 일했고, 우리는 지쳤습니다. 우리에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약간의 힌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식일에 휴식하는 일곱째 날에 6일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곳에서도 설득력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우리는 이 마지막 구절에 이르렀는데, 내 생각에는 이 구절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빵을 얻기 위해 이집트와 앗시리아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지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합니다.

내 생각엔, 여기서 다시 시제, 영어 시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6절에서 우리는 완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것은 정말로 과거, 과거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NIV는 우리가 충분한 빵을 얻기 위해 이집트와 앗시리아에 복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 없어졌고, 우리는 그들의 형벌을 담당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은 이전 세대에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수세기 전이나 심지어 반드시 수십 년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꽤 최근의 과거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기근이 있었을 때 유다의 정치적 경험의 초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근을 겪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고 해외에서 식량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외국 세력과 경제 조약을 맺으면 상황이 해결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있는 동안 기근을 겪고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장마가 오기까지 한동안 애굽으로 이주했다는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의 가족이 식량을 가져오기 위해 이집트를 방문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러한 의존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소 불길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역사에서 유다의 경우에는 외국 낙타들에게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리를 유다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전 세대가 잘못을 저질렀고 이전 경험이 부패했다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외세들이 유다에 대한 지배력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유다와 앗수르였고, 그리하여 앗수르는 바벨론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제국의 일부가 바벨론에 반역하고,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되고,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 출발점, 그 불길한 시작 요점은 바로 경제적 동맹이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종류 의 정치적 동맹 기간 에 대한 언급을 매우 자주 발견합니다 . 그러나 경제적 동맹과 조약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없어졌고 죽었으니 이전 세대가 외세와 경제 조약을 맺었으므로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으니 이 모든 상황이 점점 더 끔찍한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세요. 결국 앗수르가 바벨론을 계승한 외세에게 예속되게 되었고, 그 나라의 과거 죄악이 현 세대를 따라잡았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조상의 뜻으로 언약을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대간 결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로서 우리는 그 상황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세대적으로 보면 연루된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애가 주석을 읽어보면 7절에 대해서 꽤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6절과 대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16절에서 죄를 지었지만 우리 조상들은 7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혼란을 보고 싶어하며, 서로 동의하지 않는 두 가지 매우 다른 관점을 보고 싶어합니다. 여기에 그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본문이

있으며 , 그 노선을 취하는 주석가들은 에스겔서 18장과 2절에 호소합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그들의 포로 생활에 대해 매우 분개하고 그것이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벨론의 유다 포로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이전 세대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는지, “부모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 자식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 이를 요약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전 세대들이고, 부모들이 신 포도를 먹었고, 아이들의 이가 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바꿔서 부모는 술에 취했고, 우리 아이들은 숙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불공평하며 이 매우 그림 같은 속담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7절의 기초가 됩니까?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들은 죽었고 그들은 면죄부를 받았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며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우리가 아닙니다. 아, 하지만 16절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글썄요, 그게 다르고, 그게 다르고 여기에 혼란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두 가지 다른 관점, 두 가지 다른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글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서에는 두 가지 상황을 연결하는 두 개의 연결고리로 결합하려는 구절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절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79편과 8절과 9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우리에게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사오니 애가 7절이 합당하리이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오 하나님,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도와시고, 당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조상들만 죄인이었다는 말이 아니고, 조상들만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묶여 있고, 이 두 가지는 함께 묶여 있으며, 둘 다 과거와 현재의 끔찍한 죄 고백을 나타냅니다.

6절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 간 연대에 참여했고, 애굽과 앗수르와 조약을 맺고, 충분한 빵을 얻기 위해 애굽과 앗수르에 항복했고,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달된 세대 간의 연대에 참여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7절과 16절을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5장의 첫 번째 부분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절, 사실 마지막 두 절인 6절과 7절은 죄책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8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애가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12회 애가 5:1-7입니다.